



권장 검사

출처:



[유전자 검사 FAQ's](#)



[유전학 관련 발표](#)

청각 상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 검사를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
- 어린이가 청각 장애/난청(d/hh) 진단을 받으면 미국유아청력합동위원회(Joint Commission on Infant Hearing, 약칭: JCIH)는 청각 상실과 관련된 다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권고합니다. 전문가 평가는 유전 상담사, 심장 전문의, 신경과 전문의, 안과 전문의 등에 대한 방문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.
- 유전학은 유전자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. 유전자는 조상으로부터 특징이나 특성을 물려받는 방법입니다.
- 가족은 유전학 전문가 예약/평가에서 유전 상담사나 유전학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질병이나 증후군에 대한 가족력과 어린이의 청각 상실에 관해 상담하고 검사를 위해 d/hh를 가진 어리와 아동과 부모의 혈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.
- 가정에서는 유전적 평가를 통해 청각 상실의 원인, 청각 상실의 진행 예상 여부, 기타 가능한 장애(예: 심장, 시력, 심장)와 미래 자손(또는 근친 자손)의 청력 상실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- 가끔은 유전적 판단으로 중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인지하지 못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증후군을 식별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어떤 원인도 청각 손실과 연관지을 수 없습니다.
- 연구에 따르면 청각 상실 진단의 최소 50%가 유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d/hh가 있는 모든 유아는 시력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백내장이나 어서 증후군과 같은 시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안과 의사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중증 난청이 있는 어린이에게 심전도 검사를 제안하는데, 이는 인지되지 않는 경우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벨 랑쥐-닐슨 증후군(Jervell and Lange-Vielsen Syndrome)이라는 희귀 심장병을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.
- 의사는 CT 스캔과 MRI를 의뢰하기도 합니다. CT로는 중이를 관찰하고 MRI로는 내이와 신경을 확인합니다. 이러한 검사는 청각 상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소리 증폭을 위한 장치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